

#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46번 (사랑의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 제 1독서 | 지혜서 7,7-11

####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좌)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우)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좌)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제 2독서 | 히브리서 4,12-13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 복음 | 마르코 10,17-27

####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엄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Today's Gospel - Mark 10:17-27

Jesus was setting out on a journey when a man ran up, knelt before him and put this question to him, 'Good mast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Jesus said to him, 'Why do you call me good? No one is good but God alone.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must not kill; You must not commit adultery; You must not steal; You must not bring false witness; You must not defraud; Honour your father and mother.' And he said to him, 'Master, I have kept all these from my earliest days.' Jesus looked steadily at him and loved him, and he said, 'There is one thing you lack. Go and sell everything you own and give the money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But his face fell at these words and he went away sad, for he was a man of great wealth.

Jesus looked round and said to his disciples, 'How hard it is for those who have riche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 disciples were astounded by these words, but Jesus insisted, 'My children,' he said to them 'how hard it i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It is easier for a camel to pass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a rich ma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were more astonished than ever. 'In that case' they said to one another 'who can be saved?' Jesus gazed at them. 'For men' he said 'it is impossible, but not for God: because everything is possible for God.'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둬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가톨릭 교리 - 미사 중 “일어섬”에 대하여

해설자의 “모두 일어선다.”라는 멘트와 함께 우리는 미사 중 일어섭니다. 물론 해설자의 권유에 따라 행해지는 태도라기보다는 우리는 미사 중 언제 일어선다 하고, 언제 앉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섬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섬”의 행위 안에는 존경과 공경의 상징성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일어선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희망과 믿음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가톨릭 교회는 일어서는 의미를 하느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본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마르코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미사 중 “일어섬”의 의미와 가장 밀접한 연결이 되는 주님의 초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쿴!>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

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픈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일어서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일어서서 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곧 일어섬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부르심이자, 주님의 음성에서 따라 걷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 중 일어서는 동작은 주님의 음성에서 순명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 중에 일어서는 행위는 몸으로 드러내기 위한 동작의 기도이자,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어떻든, 우선 미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음성에서 따라 능동적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 나아갈 때, 우리는 몸으로써 주님께 고백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도 성장될 수 있습니다. 꼭 기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몸으로도 주님께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미사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전교구 Fr.윤진우 세례자요한

### <토마스 머튼의 기도>



내 주 하느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모르고,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른다는 사실이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갈망이 사실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러한 갈망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갈망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면, 비록 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저는 당신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탁하렵니다. 당신이 늘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가 홀로 위험에 직면하도록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 토마스 머튼(1915-1968): 트라피스트 수도자

## 공지 사항

### 1. 여정 '시즌 2' - 영적독서 모임

- 가톨릭 신앙과 관련한 책을 선정하여,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나누는 '영적독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임은 한인성당 Zoom 온라인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시간이 되신다면 '독서모임' 전 '묵주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기간: 11월 중순부터 시작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독서모임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7일**까지입니다.

\* 이메일 주소: [canberra.kcc@gmail.com](mailto:canberra.kcc@gmail.com)

### 2. 캔버라 교구 사제서품식 미사

- 서품대상자: Mark Ha 부제님
- 일시: 10월 17일(목), 5:00pm
- 장소: St Christopher's Cathedral

### 3. 로컬 다문화 미사

#### (South Belconnen Multicultural Mass)

- 일시: 11월 3일 (주일), 10:00am
- 장소: 아란다 성당 (St.Vincent de Paul's)
- \* 미사 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 로컬 다문화 미사 당일 오후 3시 한인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 미사 참례자 수 |

9월 29일	유아·청소년: 31명	성인: 69명
10월 6일	유아·청소년: 18명	성인: 39명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b>화</b>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전례 독서 봉사자 |

<b>이번주</b> (10월 6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b>다음주</b> (10월 13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b>이번주</b> (10월 6일)	마르코반
<b>다음주</b> (10월 13일)	마태오반

### | 우리들의 정성 | (10월 5일 ~ 10월 11일)

<b>봉 헌 금</b>	\$ 207			
<b>교 무 금</b>	\$ 670			
강원혜	권모순	서진원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이재희	정은영
조성희	황병욱	허준		

###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b>Name:</b> Korean Community Church
<b>BSB:</b> 062786
<b>Account Number:</b>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